전주관광타워 추진 자광, 경제비전페스타 개최

내달 11일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행사장서 축하 공연 · 불꽃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전주지역 중심지역에 폐건물로 방치돼 온 옛 대한방직 부지에 '전주관광타워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자광(회장 전은수)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제비전페스타'를 연다.

㈜자광은 내달 11일 오후 6시부터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에서 축하 공연과 불꽃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로 풍성한 '경제비전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광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전주 경제 대변혁의 초석이 될 전주관광타워복합사업의 추진상황을 전주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경제비전페스타를 준비했다.

경제비전페스타는 지역경제발전을 희망하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는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되는 전주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은 지난달 주택 분양을 위한 주택분양모델하우스건립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자광 '경제비전페스타'

앞으로 협력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감리자지정공고 및 계약, 안전관리계획서, 착공 신고 등을 거쳐 본격적인 부지개발이 이뤄진다.

공사가 완료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에는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49층, 10개 동) 3,536세대와 복합쇼핑몰·대형마트·영화관·국내 최대규모의 도심형 공개공지 공원, 470m 높이에 360도 파노라마 뷰로 설계한 관광전망타워, 호텔 200실, 그리고 공공청사 효자5동 주민생활지원센터를 갖추게 된다.

특히 공사 기간 중 30,000여 명의 양질 일자리·운영시 3,000여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업체 건설·장비·인력·자재·숙박·식음 분야 활력은 물론, 중소상인의 지역소비경제유발효과로 연간 2조 5천억원(전북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결과)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자광은 오랜 세월 동안 서부신시가지 한복판에 폐공장부지가 창의적 복합개발로 완성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관광상업중심의 국내 최고 랜드마크시설과 정주여건을 갖춘 모든 시설이 완성되면 전주시는 500년 왕조의 역사와 더불어 한옥마을을 찾는 1,500만 명의 관광문화플랫폼이 결합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자광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2036하계 전주올림픽유치'와 더불어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2029년 개항목표)·새만금 신항만건설(2027년 개항목표)이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향후 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 산업유치·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예산이 투자 유치될 경우 전주는 지방소멸도시가 아니라 성장인프라를 구축하는 '광역도시' 위상을 갖는 미래비전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대규모 공한지주차장 조성 나선다

전주시, 3월까지 서부신시가지 교통 요충지에 340면 규모 조성

전주시가 유동 인구 증가로 주차 수요가 급증한 서부신시가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효자5동 주민센터 인근(효자동2가 1227-1 일원) 유휴부지 8386㎡(약 2500평)를 활용해 총 340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신시가지에는 현재 21개소 877면의 공영주차장과 다수의 민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지속적인 외부 차량 유입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서부신시가지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직접 소유주를 찾아 수차례의 면담을 거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달 중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3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 3년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바닥 정비를 위한 기초

공사 외에도 가로등과 CCTV 설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협약이 완료되는 오는 2028년 말에는 토지주와 연장 운영에 대해 상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한지주차장은 유휴부지 활용을 희망하는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부지 주변 주차 여건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주지역에는 현재 81개소 1337면의 공한지주차장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는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제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시는 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어 민관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희성 기자

'먹거리에서 산업으로, 미래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박차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년브리핑 통해 농업 분야 5대 전략 제시

전주시가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소비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올 한해 도시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농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15일 2026년 신년브리핑을 통해 '먹거리에서 산업으로, 미래도시농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한 농업 분야 5대 주요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도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미래농업 거점 구축으로 농업 성장동력 확보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통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 문제 해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거점공간 조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정착이다.

먼저 시는 올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 거점이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준공하고, 공공 급식과 농식품 산업 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산 단계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농식품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과 생산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유통 효율성과 품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산지 유통과 공동출하 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공동브랜드 '전주 한옥애뜰'을 단순 홍보 차원을 넘어 전주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체계화·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시는 통합마케팅과 수출지원을 연계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시장 확장과 부가가치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먹거리 돌봄 사업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기반을 넓히고, 생산~가공~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5일 2026년 신년브리핑을 통해 '먹거리에서 산업으로, 미래도시농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한 농업 분야 5대 주요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전문 농업인력 육성 교육을 지속 추진해 미래농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끝으로 시는 △도시농업 체험농장 운영 △도시·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도시농업 연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의 일상 속 농업 접점을 넓히고, △반려동물 등록 지원 △동물보호 교육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중식당 독립군 · 전주완산로타리클럽, 자장면 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중식집인 독립군은 전주완산로타리클럽과 협력하여 관내에 있는 완산청소년센터,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자장면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독립군 중식집에서 정성껏 자장면을 준비

하고, 완산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배식과 현장지원에 참여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4158만원 부과

전주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8만5637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4158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병원 등이 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전자고지 신청자)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